

“혈세 수억 썼는데”... 한번 쓰고 폐기되는 기표대

SOCIETY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6·3 대선 때 광주·전남 5800대 설치... 일괄 수거·폐기 미개봉 제품도...선관위 “보관 어려움·사고 위험 방지”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한 선거 기표대가 단 하루만 사용하고 폐기 처분되고 있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다. 10일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때마다 전국 투표소에는 기표대와 가립막이 설치된다. 현재 사용되는 기표대는 알루미늄 재질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처음 도입했다. 기표대는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 각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필요한 수량을 요청한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전국 선관위 수량을 취합해

전문제작 업체에 의뢰하고, 제작된 기표대를 각 지역별로 배부한다. 선거가 마무리되면 기표대는 제작업체가 일괄 수거해 폐기한다. 문제는 보관·안전상의 이유로 단 하루만 사용하고 버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에는 새것과 다름없거나 미개봉 제품까지 포함돼 있다. 선관위가 ‘기표대를 반영구적으로 쓸 수 없다’는 이유로 폐기하고 있지만 일회성으로 남비되고 있는 예산 수준이 상당하다. 실제 지난 6월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



령 선거 때도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 19만18670여개의 기표대가 설치됐고, 그 비용은 28억4000여만원에 이른다. 광주에서는 357개 투표소에 1400여개 기표대 (6160여만원)가, 전남에서는 862

개 투표소에 4400여개의 기표대 (1억 9360여만원)가 설치됐다. 앞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는 41억 7000만원,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는 23억5000만원이 기표대 제작 비용으로 사용됐다. 해당 기표대는 제작업체를 통해 모두 수거됐다. 점교 폐기도 수월하고, 특별한 흡집도 없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한 기표대이지만 수명은 12시간에 불과해 선거 때마다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선관위는 기표대를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시간이 지나면 서 부식, 노후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또 선거 후 유권자의 낙서, 인주 등으로 훼손된 기표대를 재사용하게 되면 선거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없기에 새로 제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대를 재사용할 수 없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수천개의 기표대를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다. 또 기표대가 알루미늄과 두꺼운 합판으로 구성돼 있는데 시간이 오래 되면 부식 등으로 손을 짚었을 때 무너지는 등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선거인들이 사용하다보니 내부 낙서나 인주 번짐 등 오염이 되면 다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면서 “이를 지우고 다시 사용하기 어려워 선거 때마다 새로 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기억이 니은이 인권 문화제’ 열린다

내일 동구 주남마을...만장기 행진·살풀이 공연 등

1980년 5월 ‘주남마을 인권 양민 학살 사건’을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으로 승화시킨 ‘제12회 기억이 니은이 인권 문화제’가 12일 열린다. 10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12일 오전 9시~오후 4시 자원2동 주남마을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추진위원회와 지원2동 주민자치회, 주남마을 주민이 개최하고, 광주시와 동구 등이 후원한다. 행사는 만장기 행진, 시 낭송, 풍선 날리기, 살풀이(우리춤) 공연, 민주·인권·평화손도장 짝기, 자원2동 주민자치회 주관, 헌법 속 인권 찾기 퀴즈, 마을 스탬프 투어, 평화의 꽃 피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철성 추진위원장은 “5·18민주화 운동 당시 주남마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해 주길 바란다”며 “많은분들이 마을 내 주요 사적지를 탐방하며 송고한 뜻을 기리고 스스로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택 청장은 “기억이 니은이 인권 문화제가 12회째까지 이어올 수 있게 해준 추진위원회와 주남마을 주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광주 시민이 참여해 1980년대 광주의 송고한 정신을 기리고 주남마을의 아픈 기억이 전 세계의 평화로 꽃피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억이 니은이’는 과거 주남마을의 옛 지명인 지한면 녹두밭 웃머리를 기억하자는 뜻인 ‘기억하라! 녹두밭 웃머리’의 초성인 기억과 니은을 의미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재개한 지 이틀째인 10일 광주 북구 정동동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에 버스들이 줄지어 정차해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 시내버스 노사 갈등 장기화...시민 불편 가중

노조 이틀째 전면파업...시, 버스 운행률 80%대 유지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인상 폭과 정년 연장 이견으로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버스 운행 차질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민 불편이 지속될 전망이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연봉 8.2% 인상, 65세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는 전국 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광주 지역버스노동조합은 사측과 이견을 좁이지 못하자 지난 5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8일 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준평 운행을 하는 것으로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사측과 광주시가 협상에 나서지 않자 전날 첫 차부터 (5시 40분) 파업을 재개했다. 현재 노조가 벌이고 있는 파업 방식은

무기한 무노동 무임금이다. 현재 노조는 노사 협상과 지방노동위원회 회의 2차례 조정까지 결렬돼 파업에 이르게 된 만큼 이제는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파업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진욱 전지노련 부위원장은 “1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 교섭과 3차례 조정회의를 거쳤지만 사측과 광주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조정이 결렬되고 결국 총파업이라는 최후 수단을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면 파업에 나선 노조는 매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시내버스 조합원 300여명은 광주 시청 앞에서 ‘버스노조 총파업 궐기대회’

를 열고 광주시가 책임 있는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사측은 현재까지 뚜렷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내버스 운행률은 8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개 회사 중 4개 회사의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비노조원 운전기사를 풀 가동한 덕분이다. 광주시는 이틀째 시내버스 880여대를 투입하는 등 출·퇴근길 집중 배차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운전기사들의 피로 누적으로 시민 교통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파업으로 일부 대형버스를 감차하거나 노선 운행 횟수가 줄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5:18 달출 20:07
예진 19:47 달진 04:39



광주	☀️	17~29
목포	☀️	17~26
여수	☀️	19~26
순천	☀️	18~28
구례	☀️	17~29
광주	☀️	16~28
임도	☀️	18~28
전남	☀️	17~24
고흥	☀️	17~28
진도	☀️	16~25

목포	밀물 (고)	02:17 / 13:59
	썰물 (저)	07:38 / 19:21
여수	밀물 (고)	08:48 / 21:34
	썰물 (저)	03:06 / 14:44

음주측정 거부 50대 체포

미세먼지 확인하세요!
○만취 운전을 하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50대 남성에게 체포. 10일 광주 서부경찰이 도로교통법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조사 중인 5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5분 광주 서구 금호동 일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아.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차량이 상가 벽에 부딪히는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음주 의심 신고를 하면서 탐미가 잡혀. 출동한 경찰은 A씨가 3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 등을 요청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 한편,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이상 거부한 운전자는 음주운전자로 간주돼 면허 취소와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윤용성 기자 yo1404@

광주 늘봄학교 강사 1명 ‘리박스쿨 자격증’

시교육청 늘봄 프로그램 전수조사...초등 2곳 운영

광주시교육청은 10일 리박스쿨 논란과 관련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수조사 결과 개인강사 중 1명이 리박스쿨 관련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강사는 저학년용 동화 구연·책 놀이 프로그램을 광주지역 초등학교 2곳에서 운영했으며, 지난해 5월 리박스쿨에서 발급한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긴급점검을 통해 이 강사가 제출한 운영계획서와 운영 프

로그램 등을 현장 조사했으며, 리박스쿨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강사 이외에 관련 초등학교 늘봄학교에서 리박스쿨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나 개인 강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향후 교육부와 2차 공동 조사를 통해 정치적 편향 교육 여부와 기타 위법 행위 여부 등을 조사하고 확인 시 경찰 수사 의뢰·계약 해지 등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

안전보습 몬스타수분

TONYMOLY®
street culture

EWG Green 등급 원료 처방
순도 100% 발효녹차 사용

토니모리 더촉촉 그린티 수분크림